

# 자작나무

강 상 준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장)

지구상에는 수십만 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저마다 생태적인 특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산속을 흐르는 맑은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매일 마시며 삶을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일년내내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건조한 곳에서 목말라 하면서도 끈질긴 삶을 살아가는 나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과 같은 높은 산꼭대기, 바람과 눈보라가 엄습하는 혹독한 공포의 추위 속에서도 옷 하나 입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나무들도 있다.

나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평생의 벗으로 삼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살아 왔다. 구상나무가 나의 벗이었고, 잣나무가 또한 나의 동료였으며, 자작나무가 역시 나의 친구였다.

내가 평생 가까이하던 나무들을 보면 모두가 하늘을 찌를 듯 20미터를 넘는 키에 곧게 자라는 우람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뿐이었다. 그 가운데 내가 만났을 때마다 늘 가엽게 여겼던 나무 중 하나가 겨울에 고운 속살을 드러내는 ‘자작나무’ 이다.

자작나무(*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Hara)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활엽수로서 전 세계에 40여종이 있으며, 과거에는 지구상 숲속 구성원의 하나로 살았었으나 지금은 멸종되어 버린 것만도 135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화석(化石)으로 남아있어서 그 존재는 확인할 수 있다.

‘자작나무’를 영어로는 Birch, 독일어로 Birke, 불어로 Bouleau 라고 하고,



사진 1. 설원에서 하얀 속살을 드러낸 자작나무 숲

Anglo-Saxon어로는 berc, bierce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모두 ‘숲속의 귀부인 (lady of forest)’ 또는 수목의 여왕(queen of trees)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1965년 미국에서 제작된 러시아 작가 “보리스 빠스체르나끄”의 장편소설을 영화화한 <닥터 지바고(Doctor Zhivago)>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자작나무 숲이며, 1999년도 칸느 영화제 개막작이었던 <러브 오브 시베리아(Love of Siberia)>의 눈 덮인 자작나무 설원 등 아름다운 러시아 예술에 빠질 수 없는 주제로 사용되는 것이 자작나무이다.

우리나라 이름의 자작나무는 태울 때 “자작자작”하는 소리가 난다는 데서 따온 의성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는 우리 민족과 같이 했던 기록이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고대 제정일치 원시 자연종교시대에 돌무더기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

널 때 신(神)을 상징하는 나무인 신단수(神檀樹)가 있기 마련인데, 단군신화의 신단수는 백두산 근처의 추운 기후조건에 잘 적응하며 자라는 자작나무이거나 혹은 가장 높은 곳에서 까지 자라는 같은 종류인 ‘사스레나무(*Betula ermanii* Trautv.)’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작나무는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해 왔기에 자작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많다. 결혼을 의미하는 화촉을 밝힌다는 말은 자작나무 화(樺)에서 유래한 것이다. 예전에는 촛불이 없어서 자작나무의 껍질에 불을 붙여 촛불 대용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촉을 밝힌다고 하면 결혼식을 말하는 것으로, 즉 자작나무 껍질의 불로 어둠을 밝혀서 행복을 바란다는 의미인 것이다. ‘화촉을 밝히고’의 화촉은 색깔을 넣은 밀초라는 이야기도 있다.

겉으로는 연약하게 보이나 생활력이 강한 여인네처럼 열악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속성이 있어 예전부터 시인들에게는 시의 소재가 되었던 그런 나무이다.

소식(蘇息)의 시에 보면, “송객림중 화촉향(送客林中 樺燭香)”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대를 보내는 숲속에서 화촉(자작나무 껍질의 불)을 밝히고 있는데 타는 불꽃 향기 아름답구나”. 이 때 ‘그대’라는 사람이 친구이든 애인이든 상관할 바 없다. 고요한 숲속에서 이별의 정을 나누면서 화촉의 불을 밝혔다는 것은 정감적이 아닐 수가 없다.

백거이(白居易)의 시에도 “풍촉화연향(風觸火娟香)”이란 구절이 있는데, ‘바람 앞에 불안하게 타고 있는 촛불에서 그윽한 향기를 맛 본다’고 표현한 것은 훌륭한 시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작나무’를 <시>의 주제로 한다든가 <그림>의 대상으로 한 작가들이 많다.

### 『바이칼호의

하얀 백야에서

조용히 자신을 흔들며

살아가는 자작나무

제빛을 모두 버리고  
하얀 속살 같은  
그리움 하나 간직하고  
서서 부대끼는가

.....(중 략).....

하얀 알몸 내보이며  
바람처럼  
춤을 추고  
그대 지나는 호수에  
그렇게 서 있는 가

.....(중 략).....

오늘도  
그대 마음 속  
어느 곳에  
하얀 자작나무 한 그루 심는다』  
(자작나무 이야기. 화가 김연희)

시인 <최원정>씨도 “자작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란 시에서 자작나무를  
겨울에 하얀 바람을 부르는 나무라 했다.

『햇살은 눈부신데  
잔설(殘雪)은 산등성이마다  
겨울을 깔아 놓았다

철마다 갈아입던 옷 벗어 놓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어  
수줍어함일까.....

자작나무 사이로는  
하얀  
겨울 바람이 분다

이 추운 겨울에  
나목(裸木)이 된 것이  
어디 자작나무 뿐이라

은빛 감도는  
자작나무의 속살에 취해  
겨울도  
하얀 바람을 부른다』

또, 자작나무를 노래한 시 한편(자작나무 숲: 연인들의 이야기)을 다시 소개한다.

『아침 이슬  
새 하얀  
자작나무 숲에서  
나직히  
노래를 불어야 했다

눈 맑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각혈보다 선명한  
그들의 죽음을 위해서

시베리아의 전설과 가슴 아픈

바람을 마주하며  
가사없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바이칼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자작나무 숲: 연인들의 이야기, 작가 미상)

시인 <고은>씨는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라는 시로 교조적인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광혜원 이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 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 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어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누구나 더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중략).....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한 길로 서슴  
없이 지향했다』

내 젊은 시절 한 여인을 몰래 짝사랑하면서 괴로워하던 때, 누구의 시구(詩句)인지는 모르나 읊조리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  
 자작나무 피부에  
 상처를 내며  
 말없이 그대 이름  
 불러 봅니다  
 .....」

자작나무의 줄기를 보면 칼로 썰어내듯, 송곳으로 찢어내듯, 뱀이 허물을 벗듯, 나무껍질이 가로로 종이장 처럼 벗겨지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 시인의 눈에는 이런 자작나무의 생동적 활력을 자신의 상처로 표현했으리라. 나 또한 짝사랑으로 멍이 든 가슴, 자작나무 껍질처럼 갈기갈기 찢어졌으리라. 자작나무는 해묵은 껍질을 줄기에 감싸고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가 싫은가 보다. 해마다 새로운 은백색 옷으로 갈아입어 새 단장을 하니 마치 ‘숲속의 귀부인’이라 일컫는 것은 자연스런 일로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사진 2. 낙엽이 물든 가을의 자작나무 숲

줄기의 옷을 해마다 갈아입는 나무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거제수나무 (*B. costata* Trautv.)’로 이 나무의 줄기 껍질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벗겨지는 것이 자작나무와 다르다.

종이가 개발되기 오래 전인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 종이 없었을 때 선비들은 이들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잘 다듬어서 종이 대용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잘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자작나무 껍질을 곱게 벗겨서 그 위에 때 묻지 않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있다. 종이 이외에도 자작나무의 줄기 껍질은 연료나 지붕을 덮는데 사용했으며 목재는 농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자작나무 껍질에 후세에 전할 부처님의 모습이나 불경을 적어 두는 종이 구실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작나무 껍질은 천년이 넘게 지나도 썩지 않는다. 시베리아 일대의 유목민이나 중국의 흉노, 선비족의 무덤에서 자작나무를 이용한 생활용 그릇과 관(棺)이 발견된 적이 있으며, 1973년 경주시 황남동 신라고분 155호분(號墳)인 천마총(天馬塚)에서 천마가 그려진 그림이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어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소위 “천마도 장니(天馬圖 障泥, 세로 53cm, 가로 75cm, 두께 약 6mm)”라고 하는 말안장에 백색으로 그려진 천마(天馬) 그림은 천 몇백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그 바탕 재료가 바로 자작나무 껍질이었다.

자작나무는 10~12장의 얇은 껍질이 겹겹이 붙어있으므로 한 장씩 벗겨내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었다. 자작나무 껍질에는 부패를 막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썩도 슬지 않고 곰팡이도 피지 않는다. 간혹 수백년 또는 수천년 전에 땅속에 묻혔던 자작나무는 완전히 썩어 없어졌을지라도 껍질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자작나무 껍질은 물에 젖어도 불이 잘 붙으므로 불쏘시개로 중요하게 쓰인다. 물속에 흠뻑 담갔다가 꺼낸 것도 성냥불을 갖다 대면 즉시 불이 붙는다. 산속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진 3.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총장니로 천마를 자작나무 껍질에 그렸음

그리고 지금으로 부터 750여년전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에 걸쳐 제작된 8만여장의 목판인 경남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일명 고려대장경판)”도 자작나무에 새겼다고 전해져 왔으나, 최근 이 목판 중 시판(試板)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산벚나무 62%, 돌배나무 13%, 자작나무 8%, 기타의 나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선조 때 관가에서 제작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차고 다니게 했던,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號牌)는 아패(牙牌), 각패(角牌), 황양목패(黃楊木牌), 방목패(方木牌) 등 신분에 따라 그 재료가 달랐는데, 일반서민은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것이었으나, 7품의 선비에게는 자작나무로 만든 호패를 차게 했다고 한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북부의 산악지역에서는 자작나무를 쪼개어 너와집의 지붕을 이었으며 죽으면 껍질로 싸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자작나무는 가냘프면서도 품위가 있는 여성으로 비유하지만, 옛날 로마에

서는 죄인에게 태형(笞刑)을 할 때 형리(刑吏)가 하늘 높이 쳐들고 내리치는 태(笞)라는 작대기가 바로 자작나무로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예수님은 자작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땅을 몇 번 쳤더니 그 지팡이는 바로 살아나 큰 나무 그늘을 드리웠다고도 하지 않는가.

러시아의 농민들은 자작나무를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고 잎이 붙어있는 작은 가지로 만든 회초리를 이용하여 땀이 흠뻑 나도록 자신의 몸을 때린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땀을 흘리는 목욕을 땀 목욕(汗浴, sweat bath)라고 한다.

러시아는 식물분포구계상 전북구(全北區), 북방식물구계구(北方植物區界區), 시베리아 아구(亞區)에 속하는데, 이 지역에는 북방침엽수림대로 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인 자작나무가 전역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에 여행을 가면 누구나 하나쯤 꼭 사서 오는 목각 인형이 있다. 이 인형을 ‘어머니 인형’이란 뜻의 “마트로시카(Matryoshka)”라는 인형으로 하나의 목각 인형 안에 여러 개의 크기가 각각 다른 목각 인형이 들어 있다. 서너 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10여개가 넘는 인형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 1992년 소련 당시, 필자가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사로 초청되어 오데사대학교(University of Odessa, 현재는 우크라이나 영토임)에 갔을 때 모스크바에서 이 ‘마트로시카 인형’을 선물용으로 몇 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 인형들은 자작나무, 오리나무, 라임 등의 나무를 이용하여 만드나 주로 자작나무를 이용한다고 들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자작나무도 거제수나무와 함께 봄 곡우(穀雨) 때 줄기에 상처를 내어 흘러나오는 수액(樹液)을 받아 마시면 무병장수한다고 믿어 온 오래된 풍습이 오늘날에도 전래되어 봄이면 수액을 받으려고 산을 뒤흔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히다까(日高)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인 아이누족(Ainu族)은 산속에서 물이 없을 때면 자작나무 밑에서 불을 피우고 줄기에 상처

를 내어 수액을 받아서 밥을 지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북부지방 산간지역에서는 빈객이 오면 자작나무 수액을 대접하는 미풍이 있었다고 하며, 봄철에 수액을 발효시켜 만든 술은 별미이고 1시간이면 깨끗이 깨는 미주로 알려졌다.

수액을 산업화한 나라를 보면 핀란드, 러시아 등이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당단풍나무의 수액을 가공하여 시럽(syrup)이나 설탕을 만들고 있고, 일본에서는 しらがんば (Shirakamba,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건강 음료로서 판매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치아 건강을 생각하며 열심히 씹고 있는 껌이 있다. 자일리톨(Xylitol)이라는 껌이다. 자일리톨은 유럽의 강소국인 핀란드의 자작나무에서 주로 추출되는 천연소재 감미료로서 일명 “자작나무 설탕”이라고도 불리며, 1890년대 처음으로 알려진 후 설탕 대용품으로 쓰이는 충치를 예방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 한의학(韓醫學)과 민간에서는 자작나무의 껍질을 백화피(白樺皮) 또는 화피(樺皮)로 부르는데, 황달, 설사, 신장염, 폐결핵, 위염 등 갖가지 치료용 약재로 쓰이고 있다. 어떤 65세 할머니가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지나가던 노인한테 자작나무를 열심히 달여서 마시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자작나무 껍질을 열심히 달여 먹고 정상적인 시력을 되찾았다는 실화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작나무 종류가 변종까지 합쳐서 17종이 알려져 있는데, 고산성 낙엽고목인 자작나무와 사스레나무, 수피가 백색 또는 갈백색이고, 종이장 처럼 벗겨지는 거재수나무 그리고 깊은 산에서 자라고 수피는 암갈색이며 벗겨지지 않는 박달나무(*B. schmidtii* Regel.)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자작나무 종류들을 자연 풍치림의 구성 소재로 하여 자연공원의 풍치수나 잔디공원과 같이 넓은 공간에 정원수로 식재하는 등 조경에서 이용되지만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도시의 조경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수액 채취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곳

도 있을 정도이다.

자작나무를 이용한 바이오 한약재 개발, 수액을 활용한 유아용 시럽 및 여성용 화장품 개발, 펄프의 수율(收率)이 높고 표백성이 좋아 고급 용지 생산 원료, 가공성이 좋아 가구재, 조각재, 단판(單板, 직접 나무 원판에다 그림이나 사진을 그리거나 현상하는 판) 등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무이므로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나아가 GDP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제시된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것으로 작가에게 감사드린다.)